

지역병원을 하나로...순천시 의료 협력체계 구축한다

컨트론타워 역할 공공보건의료재단 전국 지자체 첫 내년 설립 종합병원 6곳·급성기 병원 18곳 등 연계 의료 사각지대 해소

순천시가 시민들의 의료 수요를 지역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각 병원을 한데 묶는 '순천형 지역 연결형 공공의료 체계'를 구축한다.

지난 31일 순천시에 따르면 지역에는 종합병원 6곳과 정형외과·일반 외과 등 응급질환을 치료하는 '급성기 병원' 18곳, 소아청소년과 14곳이 있다.

순천시는 이들 38개 병원의 특성을 살려 '지역병원을 하나로 묶어 대학병원처럼' 만들어 의료 공백을 메꾸는 협력체계를 만들 생각이다.

우선 순천시는 지역병원들의 협력체계를 이끌 '순천시 공공보건의료 재단' (가칭)을 내년 상반기 안에 설립할 방침이다.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 재단을 설립하는 사례는 순천이 처음이다.

순천시는 재단을 설립하기 위해 20억원을 출연하고 기업체 등으로부터 기부금 50억원을 만들어 재단 기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성된 기금은 심뇌혈관 치료 등 전문 특화 병원

운영을 위한 장비 확충 등에 쓰인다. 지역민에게 꼭 필요한 진료이지만 재정이 어려운 곳을 지원하는데도 쓰인다.

순천시는 전남도와 재단 설립을 위한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전남도 심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안에 타당성 검토를 할 예정이다.

순천시는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내년 상반기에 재단을 설립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재단은 민·관 공동 대응을 통해 지역 의료 질을 높이기 위한 자문기구 역할을 할 예정이다. 순천시는 전남 동부권에서 유일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중심으로 중증 소아가 24시간 전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순천형 소아응급실'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순천에서는 일 년 365일 평일 밤 11시·주말 오후 6시까지 어린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달빛어린이 병원'이 2곳(미즈여성아동병원·현대여성아동병원) 운영되고 있지만, 늦은 밤부터 새벽까지 의료 공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순천시가 지역민의 의료 수요를 지역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순천형 지역연결형 공공의료 체계'를 구축하기로 하고 이를 이끌 '순천시 공공보건의료 재단'을 내년 상반기 설립하기로 했다. 전남 동부권 유일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있는 순천 성가롤로병원. <순천시 제공>

순천시는 내년 3월께 '소아응급실'을 운영하며 중증 소아 환자가 갈 병원을 찾지 못하는 '응급실 뱅뱅이'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달 20일부터 한 달간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해보니 누적 이용 인원은 평일 1011명, 휴일 3348명으로 집계됐다.

병원 1곳당 평일 평균(오후 6시-밤 11시) 48명이 이용하고 휴일 평균(오전 9시-오후 6시)은 335명이 '달빛병원'을 찾았다. 달빛병원의 휴일 이용 환자는 기존 평일 운영 때 이용객(하루 평균 370명)과 맞먹는 수준이었다. 달빛병원은 달빛이 부부에게 호응을 얻고 있으며, 광양·여수 등지에서도 발걸음이 잇따르고 있다.

달빛병원으로 지정된 두 병원에서는 고위험 산모 관리도 하고 있다.

순천시는 이밖에도 심근경색, 뇌경색, 뇌출혈 등 중증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치료할 수 있도록 심뇌혈관질환센터 유치에도 힘쓰고 있다.

심뇌혈관 질환의 원활한 치료를 위해 정부, 전남도, 지역 의료기관 등과 협력해 재할 전문 의료기관도 운영할 방침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정부가 지역에 의해 설립을 승인하더라도 최소 10년 이상 걸리는 상황에서 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찾고자 했다"며 "지역 병원을 하나로 묶어 대학병원처럼 운영하는 순천형 지역연결형 공공의료 구축으로 새로운 공공의료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오염물질 초과 여수산단업체 무더기 적발...행정처분 76건

454곳 점검...9곳 수사 의뢰

기준치를 초과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배출시설을 무허가로 운영한 여수국가산업단지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해 여수산단 석유화학업체 454개소를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기준치 초과 배출 등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에서 대기배출시설 무허가 운영, 변경신고

미이행, 운영일지 미작성 등 총 76건(사용중지 1건, 경고 53건, 개선명령 22건)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대기배출시설을 무허가로 운영한 업체는 '사용중지' 처분이 결정됐다.

대기배출시설 자가측정을 실시하지 않거나 변경신고 및 운영일지를 미작성한 업체는 '경고' 처분을 받았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업체는 '개선명령' 처분이 내려졌다.

이들 업체 총 과태료는 4681만원, 초과배출 부과금은 4142만원으로 파악됐다.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미이행, 공공수역 오염행위, 개선명령 미이행 등 사업장 9곳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매년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단속이 나가고 있다"며 "관련법을 위반한 업체들은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동부취재본부장 chkim@



광양시 정장 무료 대여 '청년 감동 날개' 개시

광양청년꿈터서 평일 대여 가능

광양시(시장 정인화)는 2월부터 광양청년꿈터(광양시 오류5길 8)에서 청년 정장 무료 대여사업인 '청년 감동 날개'를 개시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사진>

이번 사업은 인구정책 시민토론회에서 제안받은 사항으로 가격에 비해 활용 가치가 낮은 정장을 광양 청년들에게 무료로 대여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구직활동 등 새로운 도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광양시에 거주하는 18세부터 45세 청년이다. 대여는 광양청년꿈터 홈페이지에서 사전 접수 후 신분증, 보증금 등을 지참해 광양청년꿈터로 방문하면 된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30분 - 오후 6시 30분까지이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대여 물품은 ▲남성의 경우 재킷, 바지, 셔츠, 벨트, 넥타이이고 ▲여성의 경우 재킷, 치마, 바지, 블라우스이며 치수별로 다양하게 구비돼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청년꿈터(061-818-2020) 또는 광양시 청년일자리과(061-797-2964)로 문의하면 된다.

김명덕 광양시 청년일자리과장은 "사업이 시행되기 전부터 관련 문의가 많아 청년들의 관심이 느껴졌고 높은 관심만큼 정장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청년들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고 '청년 감동 날개'의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구례군 3월7일까지

찾아가는 주민 보건교육 경로당 순회 건강 관리 안내

구례군은 지난달부터 오는 3월7일까지 7개 면 경로당 33곳을 찾아 고령 이용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주민 보건교육'을 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구례군 보건의료원은 지난 15일 문척면 동해경로당을 시작으로 오는 3월7일까지 산동면 경로당을 찾아가는다.

면마다 5개 경로당을 찾아갈 예정으로, 하루 경로당 1곳을 방문한다.

주민 보건교육에서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실내 체조와 통합 보건교육을 한다.

교육은 겨울철 고령자의 낙상 위험을 줄이고 활력을 높이기 위한 운동법 안내 등으로 구성됐다.

실내 체조와 스트레칭, 뇌졸중 등 심뇌혈관질환 예방 9대 수칙, 영양 지키기, 금연, 절주 등을 교육한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 뇌졸중 증상이 발생하면 골든타임(치료 적기)을 놓치지 않도록 즉시 119 신고 후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고 강조할 계획이다.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주민 공동생활의 중심인 경로당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방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구례군 보건의료원 직원이 경로당을 찾아 실내 체조를 가르치고 있다. <구례군 제공>

참전 유공자 유족 수당 신설하고 청년에 근속장려금 지급

보성군 새해 달라지는 시책

소농 직불금 10만원 인상 지급

보성군이 올해부터 참전 유공자 유족 수당을 새로 지급하는 등 새해 달라지는 제도·시책을 발표했다.

보성군은 일자리·경제 12건, 농림·축산 24건, 해양·환경·산림 7건, 관광·체육 2건, 복지·인구·여성 45건, 안전·건설·일반행정 7건 등 6개 분야 97개 신규 시책을 군 누리집에 게시했다.

일자리·경제 분야에서는 전남도 청년 근속장려금 사업이 새롭게 추진된다.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4년간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교

통약자를 위한 호출 택시는 7대로, 바우처 택시는 19대로 확대한다.

농림·축산 분야에서는 스마트 온실을 중·소농가로 확대해 개소당 300만원의 설치비를 지원한다. 농번기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를 운영하고 소농 직불금을 10만원 인상에 지급한다.

해양·환경·산림 분야에서는 친환경 유기수산물 인증비를 개인당 최대 200만원, 단체는 1000만원 지원한다. 수산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수산물 안전성 조사 항목을 93개에서 184개 항목으로 대폭 강화한다.

관광·체육 분야는 소외계층의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통합문화이용권을 기존 11만원에서 연 13만원으로 상향 지원한다.

복지·인구·여성 분야는 돌봄이 필요한 청년·장년 일상돌봄을 신설한다. 난임 부부 시술비를 지원하고, 둘째 이상은 300만원 상당 '첫 만남 이 응원'을 준다.

보성군은 '의향 보성'의 의미를 살려 올해 참전 유공자 유족 수당을 처음 지급한다.

보훈명예수당은 월 5만원에서 8만원, 참전명예수당은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한다.

안전·건설·일반행정 분야에서는 재난 복구를 위한 화재 폐기물 처리비를 최대 300만원 지원한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2024년에는 군민의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한 사소한 것부터 작은 변화를 통해 달라지는 보성군의 미래 발전을 일궈내겠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곡성군 주민 800명 대상 '건강팔팔마을' 사업

걷기·요가·혈당 측정 등 건강관리

곡성군이 올해 곡성읍 신월리 등 11개 마을 주민 800여 명을 대상으로 '건강팔팔마을' 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건강팔팔마을 사업은 지난 2008년부터 해마다 11개 마을을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176개 마을 2만787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해왔다.

올해는 곡성을 신월리와 오곡면 압록1구 등 11개 마을이 대상지에 선정됐다.

800여 명을 대상으로 체조와 걷기, 생활요가 등 신체 활동을 실천할 예정이다.

또 주민들의 혈압, 혈당, 유선성 등 기초체력을 측정하고 건강 상태에 맞는 신체활동을 추천할 계획이다. 곡성군은 지난 24일 건강팔팔마을 사업 설명회를 열기도 했다. 설명회에는 사업 담당자와 마을 대표, 건강 지도자 등 31명이 참여했다. 지난해 사업 성과와 올해 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한 뒤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곡성군 관계자는 "이 사업과 함께 자가건강관리 강화를 목표로 건강위험요인에 따른 치매 예방 관리와 구강 보건사업, 국민건강보험공단 암 검진 독려 등을 추진하겠다"며 "다양한 보건사업에 대해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곡성=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고흥군 '2기 민원응대 암행평가단' 10명 모집

고흥군이 오는 8일까지 제2기 '민원응대 암행평가단' 10명을 공개 모집한다.

민원응대 암행평가단은 11월까지 군 본청 및 읍면사무소를 민원인으로 암행 방문해 사무실 환경, 상담 태도, 맞이 태도 등 민원응대의 전체 만족도에 대해 부서 실태평가를 하게 된다.

군정에 관심과 애정이 있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군정 및 읍면사무소로 이동하면서 민원응대 품질 평가 활동으로 고흥군 친절·절렴 브랜드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군민은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평가단에 참여를 하고자 하는 군민은 군 누리집(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민원응대 평가단 활동 신청서'를 작성, 담당자에게 이메일 또는 군 종합민원실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가 많은 경우 군정 활동, 공공기관 근무 경력 등 서류 심사 후 우선 선발하며, 기타 자세한 문의는 군정 종합민원실 민원행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